



세종시의 핵심인 행복도시 전경. 전체 3단계 공정 중 1단계가 거의 완료돼 가고 있지만 정부청사와 고층 아파트만 눈에 들어온다. 도시계획은 드넓은 녹지, 대중교통 중심 시스템 등 선진적으로 짜여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이상'과 '현실'간 괴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시=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정부청사만 우뚝... 아직은 허허벌판

광주·전남 미래 바꿀 3대 役事 완공의 해 <12>

### 공동혁신도시 ③ 세종 '행복도시'는 지금

세종시 내 정부이전 기관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행복도시'의 목표인구는 50만명으로, 빛가람 도시의 10배 규모다. 지난 2007년 착공했지만, 2년 뒤인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아 국회에서 부결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2011년에야 본 궤도에 들어섰다. 지난해 말까지 국무조정실 등 12개 부처가 이전하면서 충청이 호남의 인구를 앞지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세종시의 핵심 행복도시를 둘러봤다. <관련기사 3면>

2030년까지 목표인구 50만명... 빛가람도시의 10배

주거·편의시설 미비 이주 직원 33% 서울서 출퇴근

지난 22일 오전 11시, 겨울 찬바람 속 '행복도시'는 아직 도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여전히 고층아파트, 공공청사 등의 건립공사가 계속되고 있고, 먼지로 뒤덮인 도로는 도시 전체를 뿌옇게 보이게 했다. 국무총리실 등 정부부처가 있는 정부청사 집적지역은 거리에 다니는 사람조차 거의 없을 정도로 한산했다. 각 청사 주변에

대규모로 조성돼 있는 주차장만 정부 부처 및 기관 직원, 업무 차 행복도시로 오는 외부 기관·단체 관계자, 민원인들의 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중교통 중심 도로망, 대규모 녹지 조성, 모든 청사가 하나의 근저를 이어져 있는 복합구조 등 최첨단 도시조성기법이 모두 동원됐지만, 행복도시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처럼 보였다. 또

현재까지 드러난 초고층 아파트 숲과 대규모 공공청사로 대표되는 외형은 다른 신도시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인상을 강조했다.

정부청사 집적지역 주변에는 원룸분양, 아파트·오피스텔 매매를 알리는 플래카드들이 쪽 줄여서 있고, 점심시간이 되자 몇 안 되는 인근 음식점은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오피스텔 공사 현장 경비로 일하고 있는 안모(61)씨는 "직원을 대부분이 대전과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며 "주거 및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 억지로 내려온 공무원들은 물론 현장 근로자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공사 현장에서는 배달 음식·반찬 부처 및 기관 직원, 업무 차 행복도시로 오는 외부 기관·단체 관계자, 민원인들의 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중교통 중심 도로망, 대규모 녹지 조성, 모든 청사가 하나의 근저를 이어져 있는 복합구조 등 최첨단 도시조성기법이 모두 동원됐지만, 행복도시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처럼 보였다. 또

가운데 절반 정도는 여전히 주중에만 세종시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층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나오는 대로 분양되고 있다. 상당수가 시세 차익을 노린 '가수요'인 셈이다. 청사 인근에 22~44㎡ 규모 1036실을 갖춘 유명 건설사의 오피스텔 역시 지난해 초 분양하자마자 완료가 됐다.

청사에서 10여 분 거리에 공인중개업소 100여 곳이 성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가수요' 때문이다.

행복도시의 정부 계획대로라면 16년 뒤인 2030년에야 도시의 자생적 성장이 가능한 완성 단계, 즉 목표인구 50만명이 자족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전망이다. 2015년까지 인구 15만명, 2020년까지 30만명 등 시기별로 목표인구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관건은 주민 수요에 맞춰 도시 공간이 충실히 조성될 지 여부다. 또 서울·대전 등 KTX나 고속도로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접근이 가능한 대도시와의 비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인지도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윤현석기자 chadod@

## “北 급변사태 대비 한·미 연합 억지력 유지해야”

성 김 주한 미대사 한국지방신문협회 인터뷰

성 김 주한 미국대사는 22일 북한의 급변 사태 우려와 관련, “현재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북한 내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고,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으로 강력한 연합 억지력을 유지한다면 북한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5면>

김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미국대사관에서 광주일보 등 전국 9개 지역 대표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지

방신문협회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사는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솔직한 고지지의 의지를 갖지 않고, 6자회담이나 다른 회담을 통해 약속한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상 진전은 없을 것”이라며 ‘선비핵화’ 의지를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일관계와 관련 “우리는 한국대사관에서 광주일보 등 전국 9개 지역 대표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지

방신문협회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사는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솔직한 고지지의 의지를 갖지 않고, 6자회담이나 다른 회담을 통해 약속한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상 진전은 없을 것”이라며 ‘선비핵화’ 의지를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일관계와 관련 “우리는 한국대사관에서 광주일보 등 전국 9개 지역 대표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지



서 “한국은 ‘서울 이상의 것’(서울만이 아니라는 의미)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여수 예울마루 애물단지 되나

GS칼텍스 기부채납 앞두고 운영권 시아만 논란

매년 30억 적자...시의회 “시기상조...연장해야”



대규모 종합 공연장인 여수 ‘예울마루’ 운영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사회공헌사업 투자협약에 따라 여수시 시전동 망마산과 장도 일원 70만1000㎡의 터에 1350억원의 예산을 들여 1단계 사업으로 종합 공연장인 예울마루와 망마산 전망대, 2단계 사업으로 장도에 상설 전시장과 보행 교량 등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2년 5월 10일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공연장과 기획전시장, 휴게시설을 갖춘 지하 7층, 지상 1층에 16만7570㎡ 규모의 예울마루를 비롯한 1단계 사업을 완공,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GS칼텍스재단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장도

에 상설전시장과 아틀리에, 휴게시설, 보행교량 등의 건립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GS칼텍스재단 측이 시설물 개관 당시 체결한 ‘예울마루 조성 및 운영 실시협약’에 따라 현재 임시사용 상태인 1단계 사업에 대한 준공신청과 함께 기부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운영권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현재 예울마루는 매년 30억원의 적자를 보는 상태여서 운영권이 여수시로 넘어오게 되면 시가 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여수시는 애초 협약대로 올 상반기 안에 시설물 기부채납을 받기로 하고 다음달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회에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을 제출하고 지난 17일 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예울마루 운영에 매년 30억원의 적자를 보는 사실을 지적하며 지역적 정서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단계 사업 시설물의 기부채납이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협약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여수시가 운영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지역 문화예술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GS칼텍스측과 운영기간 연장 문제, 시 직영, 별도 재단 설립을 통한 운영 등 운영주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충남까지 확산...금강 가창오리 감염 확인

### AI 조비상

부안 발병 농가와 동시 공급

장성·함평 새끼오리 역학조사

충남 서천 금강하구에서 발견된 가창오리 사체가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23일 알려지면서 AI가 전북에 이어 충남까지 확산할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전남도는 AI 확정 판정을 받은 부안 오리 농장에 새끼 오리를 공급한 부화장이 장성·장흥·함평·나주 지역 오리 농가에도 오리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 23일 해당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고 역학 조사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7면>

또 올 AI 사태의 진원지인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종적을 감춘 가창오리 7만여 마리가 충남 서천 금강하구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강하구에서 죽은 채 발견된 가창오리 3마리를 부검한 결과 동림저수지의 가창오리와 같은 H



지와 금강하구는 직선거리로 55km 떨어져 있어 최대 10km인 방역당국의 방역망을 넘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금강하구의 가창오리 폐사체 발견지를 중심으로 반경 10km의 방역대를 추가 설치하고 방역대 안 농가의 이동제한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또 이날 환경부 관계자는 “20~21일 고창·부안 지역에 눈이 내려 22일 가창오리 7만여 마리가 먹이를 찾아 금강하구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3일까지 정밀조사를 해 보다 정확한 가창오리의 개체수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5N8형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고병원성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80%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오리들이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되면 AI가 전북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한 첫 사례가 된다. 동림저수



www.kgc.co.kr

KGC 인삼공사

## 함께 뛰어가 와락 안기고 싶은 당신계만큼은...

가끔 전화통화 드릴 때 짧은 대답 몇 번하고  
아이를 바껴주곤 했습니다  
집안 행사에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만 보낸 적도 많았습니다  
올해 설에는 직접 한번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라는 이 마음 담아...



2014년 정관장이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설의 마음 사은 행사’ 1/14~1/3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ww.kgc.co.kr](http://www.kgc.co.kr)  
고객상담전화 080-041-0303

## 정관장